

일단 전체적으로 <보기 ㄱ>과 관련하여 질문 (1), (2), (3)이 있고 <보기 ㄴ>과 관련하여 질문 (1), (2), (3)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설명할게요.
 <보기 ㄱ>과 <보기 ㄴ>은 모두 제시문 1단락 진술 A "철수는 영희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믿는다."하고만 관련 있는 글입니다. 진술 A와 관련하여 제시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결국은 제시문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진술 A와 진술 B의 주어 차이를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제 시 문]	(제 시 문 해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희가 일으킨 교통사고 현장을 철수가 목격. · 영희는 철수가 아는 사람. · 진술 A "철수는 영희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믿는다"라고 표현. · “영희는 민호의 아내” 라고 가정했지만 참은 아니다. (∵ 철수는 영희가 민호의 아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기 때문.)	아마도 붉은 색 문장이 이해가 어려우셨던 것 같네요. 우리는 여기서 진술 A의 주어인 철수 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즉 진술 A는 “ 철수 는 ~을 믿는다.” 이죠.) 그렇다면 “ 영희는 민호의 아내 ” 라고 가정해도 영희가 민호의 아내임을 철수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다면 (추가로 가정되지 않는다면) “철수는 ~을 믿는다.” 또는 “철수는 ~을 믿지 않는다.” 모두 도출되지 않습니다. (즉 아는 사실은 믿는다고 표현하고, 모르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철수가 주어인 진술 A의 영역에서는, 철수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가정되어야 하지만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시문 해설이 이해되었다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볼게요.^^

질 문	답 변
<보기 ㄱ 질문> 일단 제시문에서 진술A에서 '철수는 민호의 아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믿는다.' 가 도출되지 않는 이유는 철수가 '영희는 민호의 아내다.'라는 가정의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 보기 ㄱ에서 '철수는 민호의 아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믿지 않는다.' 또한 도출되는 거 아닌가요? (2) 제시문대로 철수는 민호의 아내를 모를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호의 아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믿는다.' 라는 문장이 도출될 수 없다면, 이것을 ㄱ가정 '영희는 민호의 아내가 아니다.' 와 결합해서 해석한다면 '영희가 민호 아내이든 아니든 민호 아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는 믿지 않는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요? 강의에서 철수가 믿는 것을 가르쳐 준 적 없으니 '믿는다가 아니다.'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제시문을 근거로는 저 문장이 도출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3) 이것이 보기 ㄱ에서 가정한 '영희는 민호의 아내가 아니다.' 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ㅠㅠ	(1) 철수가 ‘영희는 민호의 아내다’ 라는 가정의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시문] 철수는 (민호의 아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믿는다” 도 도출되지 않고, “<보기 ㄱ> 철수는 (민호의 아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믿지 않는다” 도 도출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기서는, 주어인 철수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합니다.) (2) 즉, “영희는 민호의 아내가 아니다” 라고 가정했어도 이를 철수가 아는지 모르는지 가정되지 않았다면 철수가 주어인 진술 A로부터는 “철수는 ~ 믿지 않는다” 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3) (2)의 답변과 그 원리가 같습니다. “영희는 민호의 아내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철수가 안다고 가정되지 않는다면 ,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도출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기 ㄴ 질문>

진술 A는 '철수는 영희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믿는다.' 라고 했고

(1) 이것을 보기ㄴ 가정 '영희가 초보운전자이고 철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와 연결했을 때 '철수는 어떤 초보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믿는다.' 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떤 초보운전자가 영희라고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 보기에서 말하는 '어떤 초보운전자'가 영희를 가리키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는 것 아닌가요?

그럼 ㄴ의 '철수는 어떤 초보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믿는다.' 라는 문장은 알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설명에서 '누가 교통사고 냈는지 + 영희가 초보운전자인 것' 모두 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출 가능한 문장이라고 하셨는데,

(3) 그럼 '어떤' 초보운전자 라는 수식어에 제가 너무 과하게 매달리는 걸까요??

(1) 자, 이제 <보기 ㄱ>과 <보기 ㄴ>의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보기 ㄴ> ~ 철수가 ~알고 있다.” 입니다.

<보기 ㄴ>에서 “영희가 초보운전자이고 철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가정한다면 “철수는 어떤 초보자(영희)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믿는다.” 는 도출되지요.

(2) 어떤 초보운전자는 하나의 사례만 성립해도 참인 특칭 명제이므로 영희로 특칭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이라 할 수 있죠.

결국 <보기 ㄱ>과 <보기 ㄴ>의 차이는 가정한 내용이 철수가 모르는 것(<보기 ㄱ>)이나 아는 것이냐(<보기 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글썩요, PSAT은 과하게 매달려야 하는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자구요.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